

「CINE ARCHITECTS」

映画建築藝術을 試圖한 金重業氏를 찾아서



對談：趙 祥 圭
(本誌 出版部長)

趙：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의 회원으로서의 自身の 建築作品을 映画로 製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편의 映画를 完成하기까지 苦生스러웠던 事件들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먼저 金 先生任께서 製作을 하게 된 動機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네. 정말 이번 일은 우연한 기회였어요. 제가 1965年 末에 주한 불란서 대사관 관저 設計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공적으로 불란서 정부로부터 東洋人으로서 最初로 국가 공로훈장을 받았으며 '슈바리'라는 작위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불란서 國立 放送局의 委囑으로 나의 作品을 촬영코져 現 불란서 映画界의 俊才인「빨 부룡」(촬영기사)氏와 「피엘·까뮤」(效果) 그리고 女流 스크립트인 「그리스틴」嬢을 마져 1970年 7월부터 내가 設計한 作品들을 찾아 全國적으로 다니면서 순회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의 계약기간이 6個月間인데 막상 作業을 完了하기까지는 1年 2個月이 소요되었어요.

趙：거기따라서 製作經費가 많이 들었을텐데요?

金：그렇죠. 처음은 7千弗 예산이 1萬 2千弗이 들고나니 5千弗이란 돈이 더 들었어요. 韓貨로 치면 約 4百萬원 됩니다.

趙：이 作品에 수록된 作品數는 몇점이나……?

金：모두 11점입니다. 1965年 濟州大學 本館. 1966年의 徐 産婦人科 病院. 1967年의 釜山 UN墓地正門. 1960年의 駐韓 佛蘭西 大使館. 1959年의 西江

大學 本館. 1968年의 鎭海 海軍公館. 같은 해의 駐韓 伊太利 大使官邸. 1969年의 서울 東急 호텔 1970年의 3. 1路 빌딩. 1971年의 淸平 薛氏山莊.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내집 해서 모두 11점을 수록했는데 T·V. 放映用으로 26分用으로 製作해야 하는데 적고보니 3千m 즉 3時間 上映用을 26分用으로 편집했는데 정말 고충이 많았어요.

趙：필름현상은?

金：東京에 있는 東洋現像所에서 했는데 편집 기간만도 약 2個月이 소요했어요.

趙：試寫會때 본 제주대학 본관은 마치 조각품과도 같은 우아한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作品에 對해서……

金：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들 참 아름답다. 지나치게 예뻐다고들 합니다. 사실 이 大學의 作品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아름답지 않은것들을 만들수가 있겠어요.

趙：정말 詩的인 建築物이더군요. 다음 場面の 徐 産婦人科 病院에 對해서……

金：이 作品은 나로서는 충분한 경제적인 고찰을 거쳐 美的 질서를 살려 보려고 시도한 것이 이 병원 建物입니다. 建築이란 새로운 질서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趙：그다음 釜山 UN墓地의 正門도 정말 인상 깊은 作品이라 생각됩니다. 마치 고독한 異域萬里의 영혼들을 달래어 주는 듯한 인상이라고나 할까요.

金：UN에서도 이 作品에 對해서 찬사를 해 두었어요.

趙：印度 상퇴갈 政府庁舎 이후엔 어떤 作品을…
金：西江大学 本館입니다. 이때 까지만해도 ‘루·콜뷰쥬’先生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일 장치를 써 보았는데, 내부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쓸쓸하죠.

趙：루·콜뷰쥬 先生과는 몇해 동안이나 같이 작업을 했습니까?

金：4年間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기는 이태리 「베니스」였습니다. 그분은 나의 作品을 무척 좋아 해주셨어요. 이런 것이 인연이 되어 그후 ‘상퇴갈’의 作品들을 協同했음니다만 그 代表作인 것으로는 「상퇴갈」과 「난트 아파트」 파리에 세워진 ‘부라질’館 等이라고 하겠죠.

趙：西江大学 이후의 作品은…

金：불란서 대사관이죠. 그다음 作品이 鎭海에 있는 海軍公館입니다. 그리고 그해에 이태리 大使館 邸가 있는데 이 作品은 불란서 대사관과 진해 해군공관의 美的 경험의 집약체라고나 할까요.

역시 스타일이란 지능의 소산이라고는 하나 모

방할 수도 억제할 수도 없는 어디까지나 作家의 마음의 소산이 아니겠어요. 나의 作品들을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휘귀하고, 아름답고, 오만하다」고 말입니다.

趙：三·一路 빌딩은 지난 號에 掲載가 되어 全會員이 周知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소개된 作品은

金：南山 入口에 높이 서 있는 地上 27層의 「서울 東急호텔」입니다.

趙：淸平에 있는 薛氏山莊은 몇年度 作品입니까?

金：그것이 1961年度예요. 내가 製作한 映画의 맨 라스트 씬에 소개가 되지만.

趙：作品 展示를 計劃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金：신세계 画廊에서 개최해 볼까 합니다.

趙：우리 會員들이 자주 展示會를 開催하는 것도 祖國 近代化 作業의 重要한 業務라고도 하겠으며 市民에 對한 建築士로서의 새로운 認識과 指導개몽은, 곧 建築士의 使命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